

제 10회 건강한 사회 질서 지키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2022. 7. 14(목) ~ 8. 30(화)

미워하지 않는 마음,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제 10회

건강한 사회
질서 지키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미워하지 않는 마음,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Contents

01. 인 사 말	03 P
02. 심 사 평	04 P
03. 공모전 소개	05 P
04. 작품응모 현황	05 P
05. 심사위원 명단	06 P
06. 수 상 자 명단	07 P
07. 공모전 수상작품	
[쓰 고] 동 시 부문	08 P
수 필 부문	12 P
[그리고] 포 스타 부문	26 P
일러스트 부문	36 P
[만들고] 웹 툰 부문	40 P
표 어 부문	42 P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빠르게 끝이 날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어느덧 3년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확산의 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거리 두기는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진 우리 사회는 소통과 교류의 부재로 얼음막을 씌운 듯 차갑기만 합니다.

비대면 사회, 개인의 생활이 너무도 익숙해진 지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서서히 멀어져 가고 갈등만이 남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종 간, 남녀 간, 세대 간의 갈등은 코로나와 함께 점차 깊어져만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혹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준다면 한층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후원 아래 ‘건강한 사회 질서 지키기 공모전’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갈등의 불협화음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공모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0회를 맞이한 만큼 첫 회 공모전의 초심을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얼어붙어 있던 사회의 갈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일 수 있는 공모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의 참여로 총 69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모전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지속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에 보내주시는 꾸준한 관심은 갈등이 만연한 현재의 사회를 되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수상 작품집을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모전 개최 의의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끝으로, “제10회 건강한 사회 질서 지키기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 공모전의 원활한 진행과 작품집 발간에 힘써주신 건강사회운동본부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23년 제11회 공모전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 수 구

02 심사평



2022년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공모전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저를 비롯한 공모전 심사위원단과 운영위원회의 고민은 늘 하나였습니다.

‘우리 공모전이 수많은 공모전과의 차이는 뭘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회통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 우리 공모전의 정체성임을 늘 잊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몇몇 학교 중심의 다문화 학생들만이 공모전에 참여했다면, 10년이 된 지금 다문화 학교를 넘어서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학생들이

우리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수상작에 다문화, 보육원 학생들이 포함됨으로써 질적 성장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모전의 의미와 가치를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품 수는 작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응모한 작품들이 질적으로는 성장한 공모전이었습니다.

부문별 접수 작품을 살펴보면, 동시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 적었습니다만, 다양한 아이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작품의 수준 역시 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학교의 단체참여 독려로 구색 맞추기 식의 참여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다양한 기관, 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10회를 맞이하고 있는 공모전의 ‘건강한 사회통합’이라는 정체성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표어는 이전에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작품들이 많은 것에 비해 이번에는 표어가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단지 기존의 식상한 표현에 머무른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수필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커다란 주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 그리고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포스터 부문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 흡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공모 작품처럼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일러스트는 비슷한 소재를 그린 친구들이 많았고 작년과 같이 포스터와 일러스트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모 부문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툰은 전체적으로 수량이 적었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나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창의적이며 개성적인 작품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라는 화려한 순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갈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런 것들을 유년기부터 생각해 보고 작품화 해보는 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인격적으로 건강한 개인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모전은 내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치를 잘 표현한 학생들을 발굴하는데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공모전이 10회를 맞이하기까지 건강사회운동본부 사무국, 공모전 운영위원회의 오랜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공모전 참여자 및 수상자, 수상자 가족분들께 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심사위원장 **김 연 수**

03 공모전 소개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를 주제로 올해 1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가정, 새터민, 일반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년기부터 생활 속 작은 기본을 지키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근 점점 깊어지는 인종간의 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 현 시대의 불협화음을 조금이라도 완화 하고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공모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 기 간: 2022. 7. 14(목) ~ 8. 30(화)
- 공모대상: 전국 초등학생·중학생
- 공모부문: 그리고(포스터, 일러스트), 만들고(표어, 웹툰), 쓰고(동시, 수필)
- 공모내용: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야기 나눕요!”**
 - 조금 다른 친구(다문화, 발달이 늦은 친구)와 함께 어울려요
 - 남자, 여자 서로 이해 해줘요
 - 어른(노인), 어린이를 배려 해줘요
 - 생각이 달라도 존중 해줘요

04 작품응모 현황

구 분	부 문	응 모 작 품
그 리 고	포 스타	134
	일러스트	100
만 들 고	표 어	135
	웹 툰	27
쓰 고	동 시	232
	수 필	62
합 계		690

- 다문화가정 : 104 작품
- 일반가정 : 585 작품
- 새터민 : 1 작품
- 초등학생 : 504 명
- 중학생 : 186 명

05 심사위원 명단

동시
표어
(부문)

김연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드라마전공 석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엠게우) 세계문학이론/ 문예미학 박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부 교수
2004년부터 현재 TV, 라디오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
연영화사 대표

이지호

단국대 언론홍보학
(사)여성유권자협회 대학생기자단장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홍보팀
분당서울대병원 홍보팀, 성빈센트병원 홍보팀
현) ㈜컴투스 커뮤니케이션팀

포스터
일러스트
웹툰
(부문)

김성훈

미디어아트 화가
2000년, 2001년 경인 미술관 전시 / 2011년 갤러리 이즈 개인전
LG 생활과 건강 CF 아트 디렉팅
LG전자, 삼성전자, D&G ARTWORK

한덕호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전공
연극: 쥐뿔/황금용/우리읍내/펠리칸/세자매/강택구/
쥘림스크에서의 지난여름/큰선비조광조
영화: 단편-등대지기/NAIVE-DAYZ/몽중인/누가 썼노?
드라마: SBS 달콤한 나의도시-최대리역 / JTBC 사생활: 박동은역/
MBC일일드라마 밥이 되어라 용구역

수필
(부문)

노은지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학사
현) KBS기상캐스터
KBS뉴스12, 주말 뉴스 9 출연

유은주

삼성SDI & LS전선 회화 및 Business Letter 수업 지도
북 리뷰 및 에세이 작성법 수업 지도 등

06 수상자 명단

초등학생 : 25 명 중 학 생 : 4명
일반가정 : 24 명 다문화가정 : 5명

구 분	부 문	이 름	학 교	학 년	작 품 제 목
법무부장관상 [대 상]	동시	박민혁	여수여명학교	4	한민이 글씨
최우수상 (2)	포스터	이윤아	경남대병초	6	우리가 함께면 더 단단해
	포스터	김소윤	서울전곡초	2	모두 똑같은 우산
우수상 (10)	동시	김민지	부천송일초	2	깍두기
	동시	김민혁	여수신월초	2	친구
	수필	강민재	대구영신초	3	홍길동 덕분에
	수필	정지원	강원설온중	3	내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
	수필	최지섭	서울가원초	4	우리 엄마는 코끼리
	포스터	이준우	안산원곡초	6	우린 다르지만 함께 할 시간입니다
	포스터	이한별	광주효천초	2	그림자도 다른 색인가요?
	일러스트	김우리	김포구래초	4	종이비행기
	일러스트	김주완	인천연성초	5	모양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웹툰	정현하	서울대사범대학부설여자중	3	배려가 만들어낸 화음
장려상 (7)	동시	오준서	안양삼성초	2	어른이 되어
	동시	장서울	대전산성초	5	파도
	수필	엄규영	서울탑산초	4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동네
	포스터	박예린	경남대병초	6	조금 특별한 게 틀린 게 아니야
	포스터	윤지훈	안양삼성초	3	어른을 공경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포스터	김혜성	용인양지초	4	너의 마음이 보여
	일러스트	김경령	경남 창원동중	2	퍼즐 속 우리들
입 선 (9)	표어	권도원	경남대병초	6	과거엔 도움 주는 나 미래엔 도움 받는 나
	수필	류원엽	오산세마초	6	조금은 달라도 괜찮아!
	수필	양준경	서울한서초	4	화내지 말고 이해해 봐요 우리
	수필	한정민	세종다빛초	5	이해의 티끌로 행복 태산 만들기
	포스터	김빅 토르	안산원곡초	6	크기는 달라도 빛은 같습니다
	포스터	장윤지	인천부평북초	2	모두가 꽃입니다.
	포스터	주혜리	인천연화초	6	다양한 피부색 같은 마음
	일러스트	곽연우	용인상현중	1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웹툰	이 봄	대구성동초	6	차별 없는 교실



한민이 글씨



여수여명학교
4학년 1반
박민혁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오는 한민이는
연필 잡은 손이 휘었어요
연필을 자주 떨어뜨려요
감이 떨어지듯 떨어뜨려요
글씨가 뻘뻘 운동장을 달려가요
바람처럼 달려가요

한민이에게 지우개를 빌려주고
흰 눈처럼 깨끗이 닦아주기도 해요
한민이가 흘리는 침에 햇빛이 반짝여요
송송한 바람이 반짝여요

깍두기



엄마랑 식탁 위에 놓인
깍두기를 먹었지.

놀이터에 갔더니
깍두기가 있었어.

우리 편 되면
진짜~ 뻘하지!

몸이 약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착해

그래도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부촌송일초등학교
2학년 3반
김민지



친구



여수신월초등학교
2학년 3반
김민혁

나보다 키가 작고
몸집이 작은
친구를 넘어뜨린 적 있었다
친구가 울먹울먹 거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뒤 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순간 얼음이 되었다
뒷걸음으로 다가가
친구 손을 잡아주었다

해님이 나를 안아 주었다



어른이 되어



안양삼성초등학교
2학년 2반
오준서

친구야,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내일 또 만나자

친구야,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3학년에 또 만나자

친구야,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마워
어른이 되어 또 만나자

파도



너랑 안 놀아!
미워서 고개를 획 돌린다

금세 마음이 풀려
눈길을 힐끔힐끔

왔다갔다 내 마음
철썩철썩 파도 같다

좋은 생각은 종이에 쓰고
미운 생각은 모래에 쓰자

파도가 싹싹 지워버리면
어느새 마음도 깨끗해진다



대전산성초등학교
5학년 5반
장서울



홍길동 덕분에



대구영신초등학교
3학년 4반
강민재

홍길동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길동 아저씨는 정말 착한 도둑이에요. 나쁜 양반의 돈과 곡식을 훔쳐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눠줬으니까요. 홍길동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희생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고, 아껴주는 행동이에요. 그 백성들은, 욕심 많은 양반들이 땅과 재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을 혼내주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홍길동이 나쁘대요. 마음씨가 착할 수는 있지만, 도둑질 한 건 진짜 나쁘대요. 도둑질은 범죄니까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착하다고 도둑질까지 착한 건 아니래요. 친구는 모두 다 홍길동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하지만 난 그 친구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홍길동이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굶어 죽고 또 양반들의 횡포도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친구는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도둑질은 범죄야!”

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앞으로 절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너무 괴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심하고 속상했어요. 친구가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어색해하면서 쭈뼛쭈뼛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내밀었어요.

“미안해. 네 생각도 맞아.”

친구의 손에는 포켓몬 카드가 쥐여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아르세우스 슈퍼스타’ 카드! 난 이 카드를 제일 좋아하지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친구가 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고마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친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입안에서 녹는 솜사탕처럼 사르르 사라져버렸어요.

“나도 미안해. 홍길동에 대한 네 생각도 좋은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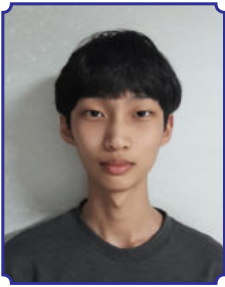
사실 그 친구와 안 노는 사이, 홍길동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봤었거든요. 친구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커졌었어요. 그런 찰나, 친구가 먼저 화해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우린 그 뒤로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누군가랑 생각이 다를 때는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거예요.

홍길동 덕분에 친구랑 나는 더 친해졌어요!



내가 꿈꾸는 평등한 세상



강원설온중학교
3학년 8반
정지원

‘우리는 누구나 다수자인 동시에 소수자’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배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물론 우리 사회에 있어 약자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이로운 일이니까. 하지만 배려라는 이로운 행위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왜일까? 나는 그 이유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일상생활 속에 참 많이 숨어 있었다. 물론 시대가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욕설들도 사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까? 만약 뜻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후천적 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민석(가명)이라는 친구가 있다. 민석이는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까지 맡고 있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다. 학급 위원 선거에서 그동안 반 친구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학급 위원이 되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연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민석이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중학생이다. 단지 몸을 사용하는 활동에서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인데, 모두가 민석이에게는 과한 친절을 베풀곤 한다. 민석이는 도움이 필요해, 민석이는 늘 착해, 민석이는 불쌍해, 이런 생각에서 온 극단적인 배려가 오히려 민석이를 비롯한 장애인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들이 불쌍하거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지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한 인권을 존중해 주는 태도다. 약자를 배려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다. 편견과 차별을 염두에 둔 배려는 진정한 배려

가 아니라 동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민석이가 좋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가, 민석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미소가. 민석이와 학교가 일찍 끝난 날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간 것도 좋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간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은 방과 후를 보냈다.

세상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갓 입학식을 마친 중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민석이를 향해 보내는 동정의 눈빛도, 내 친구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민석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는다. 민석이를 민석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들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또 친구다. 그리고 그건 민석이도,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국적, 생김새 등등 그 어떤 걸로도 사람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누다가 언젠가는 나 역시 차별받고 미움 받을 수도 있다. 나는 앞으로도 민석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세상도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우리 엄마는 코끼리



서울가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최지섭

이 이야기는 2012년 8월 무더운 여름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배가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는 할머니 코끼리의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찢찢한 여름 날,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도 않고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다가오는 그 버스는 창문에 낀 서리만 보고도 얼마나 시원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도착한 버스로 우르르 먼저 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도 버스를 타려고 몸을 일으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버스에 오르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성경 속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짹~ 갈라졌고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에게 먼저 타라며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보를 받은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는 깜짝 놀랐고 또 그들의 배려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는 바로 저를 임신 중이었던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이면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하고 또 어디든 갈수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합니다. 제가 5살 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팠고 바로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비어있는 자리 발견! 어찌나 예쁜 핑크색인지! 제 눈은 바로 그 자리에 꽂혔습니다. “자리다!!” 하고 냉큼 뛰어가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예쁜 핑크 자리에는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 카펫’이라는 처음 보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아~ 나 같은 어린이인가?” 나는 궁금해서 엄마에게 이 자리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이곳은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연출되어 있는 이 자리는 2013년부터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아빠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다리가 너무 아파 그 자리에 당장이라도 앉고 싶었지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고 배려했던 마음처럼 나도 미래의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다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었지만 코끼리를 위해 배려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뿌듯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호리호리한 몸매였으나 나를 임신한 후 다리가 굽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본 아빠께서 놀리며 코끼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코끼리는 아닙니다. 커다란 배 엄마 코끼리를 배려했던 10년 전 그 버스정류장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그때 받은 양보의 마음으로 저 또한 다른 엄마 코끼리에게 핑크색 예쁜 마음의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임산부인 엄마 코끼리와 미래의 주인공인 아기 코끼리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한발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동네



서울탐산초등학교
4학년 1반
엄규영

컴컴한 하늘이 파란 하늘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이른 시간부터 우리 동네 정자에는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점점 모여드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산책 길을 한 바퀴 돌고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귀여운 강아지들과 나오신 분,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모이십니다.

모이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웃음소리는 점점 늘어나면서 행복의 기운들이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서로서로 맛있는 음식들을 손수 장만하여 가져오셔서 같이 나누어 드시기도 하고 각 집안의 안부들도 서로 물으시면서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한 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부축해 오십니다.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이러한 광경들은 마치 시골의 소소한 모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옆 놀이터에서 놀 때에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말씀도 해주시고 캔처럼 위험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바로 치워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는 참 시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께서 심하게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사도 하시고 구토도 하시고 갑자기 기운이 너무 없다고 하시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신 두 분께서는 그분이 필요하시다는 약을 약국에서 사시고, 드시고 싶으시다는 빵까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사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이야기에 마치 자신의 일인 것

처럼 급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갑자기 ‘짹’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이런 일이 생길 때면 깜짝 놀라곤 하지만, 바로 옆에 든든한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기에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분은 기운은 좀 없어 보이셨지만 직접 걸어 나오셔서 동네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답고 배려 깊고 행복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험해지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동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를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지켜주는 ‘정’이 살아 숨 쉬는 멋진 동네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동네에 살고 있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만 꿈꾸는 세상이 있으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지만 함께 나누는 손길은 더욱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입선



오산세마초등학교
6학년 1반
류원엽

조금은 달라도 괜찮아!

“원엽아, 나 속상해. 흑흑”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켜더니 기호한테서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보자마자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며 얼른 답장을 보냈다. “오늘 학원에서 처음 보는 어떤 형이 내 피부가 어찌고저찌고하면서 막 놀렸어. 가끔 껴는 일이지만 말대꾸도 못 하고 그럴 때마다 진짜 속상해.”라고 기호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다. 기호가 보낸 메시지 속 슬픈 얼굴 모양의 이모티콘이 기호의 기분을 말해 주는 것 같았다. 바로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면 좋을지 몰라서 한참 고민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기호가 이런 일로 속상해할 때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나까지 속상해진다. “놀리는 사람이 나쁜 거야! 기죽지 마!”라고 일단 나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기호의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오셨다. 그래서 기호는 혼혈인데 외모가 약간 다르고 피부색이 조금 더 검은 편이다. 가끔 기호와 같이 다니면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무례한 아이들이 수군거리거나, 대놓고 놀릴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학원에서 어떤 형이 그랬던 모양이다.

기호는 나의 십년지기 친구이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단짝이다. 기호와 나는 친구가 될 운명이었는데 왜냐하면 기호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호와 나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기호가 혼혈이라는 것을 잊고 지낸다. 기호의 외모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가족과 기호네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기호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수군수군하고 웃기도 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 웃음이 꼭 비웃음 같았는데 나는 그때 무척 기분이 나빴다. 속상해서 따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해하려고도 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호 어머니의 고향이 필리핀이란 것과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서툰 것이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호, 기호 어머니와 함께 다니다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자신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놀림당할 일은 아닌데 말이다. 그날 기호도 눈치를 챘는지 기호의 표정은 무척 안 좋아 보였다. 나에게 장난도 안 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나는 그때 기호에게 무척 미안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배웠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똑같이 가정의 한 형태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며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기호와 함께 다니거나 기호가 경험한 일들을 가끔씩 들어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 혹은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자신과 다르다고 놀리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고 어떤 인종, 어떤 문화든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우리는 누구나 그 인종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어느 인종이든 지 모두 소중하고 평등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면 결국 자신도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게 되어있다. 자신과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동양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나 식당에서 무시당하고 놀림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인종이나 피부색은 우리가 태어날 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놀림 당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이다. 기호는 소중하고 착한 내 친구이고 아저씨의 소중하고 듩직한 아들이다. 나의 단짝 기호가 이제 더 이상은 무시당하거나 놀림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기호가 내 친구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자랑스러워.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고향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 엄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니까!”라고 기호가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다. 역시 기호는 배울 점이 많은 나의 단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멋지고 착한 기호가 더 이상은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면 좋겠다. “기호야~ 조금은 달라도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멋지니까!”



입선

화내지 말고 이해해 봐요 우리



서울한서초등학교
4학년 2반
양준경

“맞아 맞아 진짜 그래... 어머 진짜 그러네...”
엄마는 최근에 폭 빠져버린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었다.
“엄마, 뭔데 그래? 왜 자꾸 티브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 키키”
“준경아 들어봐 봐. 누가 나를 화나게 해, 그럼 어떻게 해?”
“화를 내야지 뭘 어떻게 해? 키키

유레카!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났다.

“준경아, 자~알 한 번 생각해 봐. 진짜 그랬는지. 진짜 속이 시원하고 뽕! 뿔렸었는지 잘 기억해 봐”
진짜 그러네.. 받아줬는데도.. 준희가 화를 돋운 만큼 준희한테 화를 냈는데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한 얘기 있잖아. 화내면 속 시원하냐고 한 거, 기억나죠?”

“응, 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래서 엄마, 그때 티브이 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맞네 맞아 이리면서. 뭐가 맞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러더라고. 화나도 화내지 않고 넘어가면 하루 이틀이면 사그라들 감정이 화내고 나면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도 간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준희한테 분하고, 화나고, 누워서도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화 안 내면 더 쌓여서 폭발하는 거 아닌가?”

“화를 낸다는 거 자체가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 같아 엄마는.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 좀 억울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준경이가 스스로 깨달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완벽하게 엄마 말이 이해되지는 않지만(아직 그 뒤로 준희랑 싸운 적이 없어서)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신선처럼, 무엇이든 다 득도한 사람처럼 준희의 자존심 스크래치 긁는 말을 들어도 오냐오냐 흠흠하며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큰 사람이 된 거 같은 기분이랄까?

“준희야~ 오빠랑 포켓몬빵 사러 나가볼래~?”

“오빠 이제 화 다 풀린 거야?”

“화가 풀리긴 무슨..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오빠는 이제 너한테 화 안 낼 거야. 그건 너 스스로를 잡아먹는 거거든~~”

“으잉???”

“흐흐흐... 가자!”



입선

이해의 티끌로 행복 태산 만들기



세종다빛초등학교
5학년 나래반
한정민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복이라는 감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행복이 오기 전에 무언가가 더 있어야 했다. 그것은 뭔가 더 구체적인 어떤 것이었다. 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이해와 소통, 진정한 도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내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였다. 나는 미국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미국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통하기 어려웠다. 모두들 내가 소통을 못한다고 지레짐작하며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나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어느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피구를 하자고 하시면서 아프거나 못하는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자 같은 반 남자아이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She can’t speak English!’(재 영어 못해요)라고 외쳤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나에게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하라고 했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이처럼 그들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벽부터 쌓았다. 시간이 갈수록 벽은 점점 두꺼워졌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 나를 도와주던 한국인 보조 선생님마저 사라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다. 벽에 계속 부딪히며 뚫고 나오려고 했지만 벽을 깰 수 없었고 마음이 답답해졌고 나는 어느새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아기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도움이다. 그러나 얇은 물에서 스스로 잘 헤엄치고 있는 사람을 업어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어느 날, 교실에 앉을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의자를 찾아 가져가려 했다. 그때 같은 반에 어떤 아이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의자를 대신 가져다주었다. 이후 그 친구는 모든 것을 나 대신해 주려고 했다. 모두들 날 팔다리도 없고 입도 없는 아이로 보는 것 같았다.

당연히 그 친구도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더 방해가 되었다. 갑자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두가 날 도우려고만 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없다고 보는 짧은 생각들이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없게 만들었고 소통과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 데이지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다. 내 앞을 막고 있던 벽을 깨트려 주는 도움. 그것은 사실 특별한 것들은 아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책을 읽고 내가 쓴 이야기를 읽어 주시고, 나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뿐이었다.

데이지 선생님과 이런 시간들 덕분에 영어실력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사회, 과학 등 다른 수업 시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준별 그룹 수업에서는 실력이 좋은 그룹에서 수업도 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진정한 도움이었다.

이후 자신감을 얻게 된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귀엽게 그려주거나 동물을 그려주어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다가가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친한 친구도 생겼다.

사람들은 흔히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부터 내밀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성급히 도움을 주려고만 하는 것은 본래의 좋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데이지 선생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작은 이해의 티끌들은 나에게 행복이라는 큰 산을 만들어주었다. 이처럼 때로는 성급한 도움의 손길보다 이해와 관심이 담긴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경남대병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윤아



우리가 함께면 더 단단해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처럼 외국인, 우리나라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아이, 어른, 노인과 같은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더 단단하고 멋진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아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우산

남자는 파랑색, 여자는 분홍색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서울 전곡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소윤

우린 다르지만 함께 할 시간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맞춰가는 사회



안산원곡초등학교
6학년 2반
이준우



그림자도 다른 색인가요?

다문화가정 내 친구들. 피부색도 다르고 눈동자 색도 다르고 저 마다의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의 그림자도 다른 색인가요?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우린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구입니다.



광주효천초등학교
2학년 8반
이한별



조금 특별한 게 틀린 게 아니야

수많은 세 잎 클로버 속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회속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도 틀린 게 아니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포스터 입니다.



경남대병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예린



어른을 공경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어른을 공경하는 세상,
따뜻한 사랑과 칭찬이 가득해요'



장려상



안양삼성초등학교
3학년 2반
윤지훈

너의 마음이 보여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잡아주는 위로 포스터



용인양지초등학교
4학년 2반
김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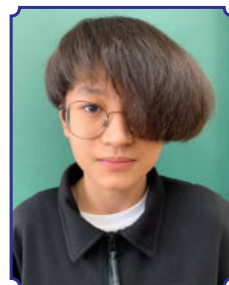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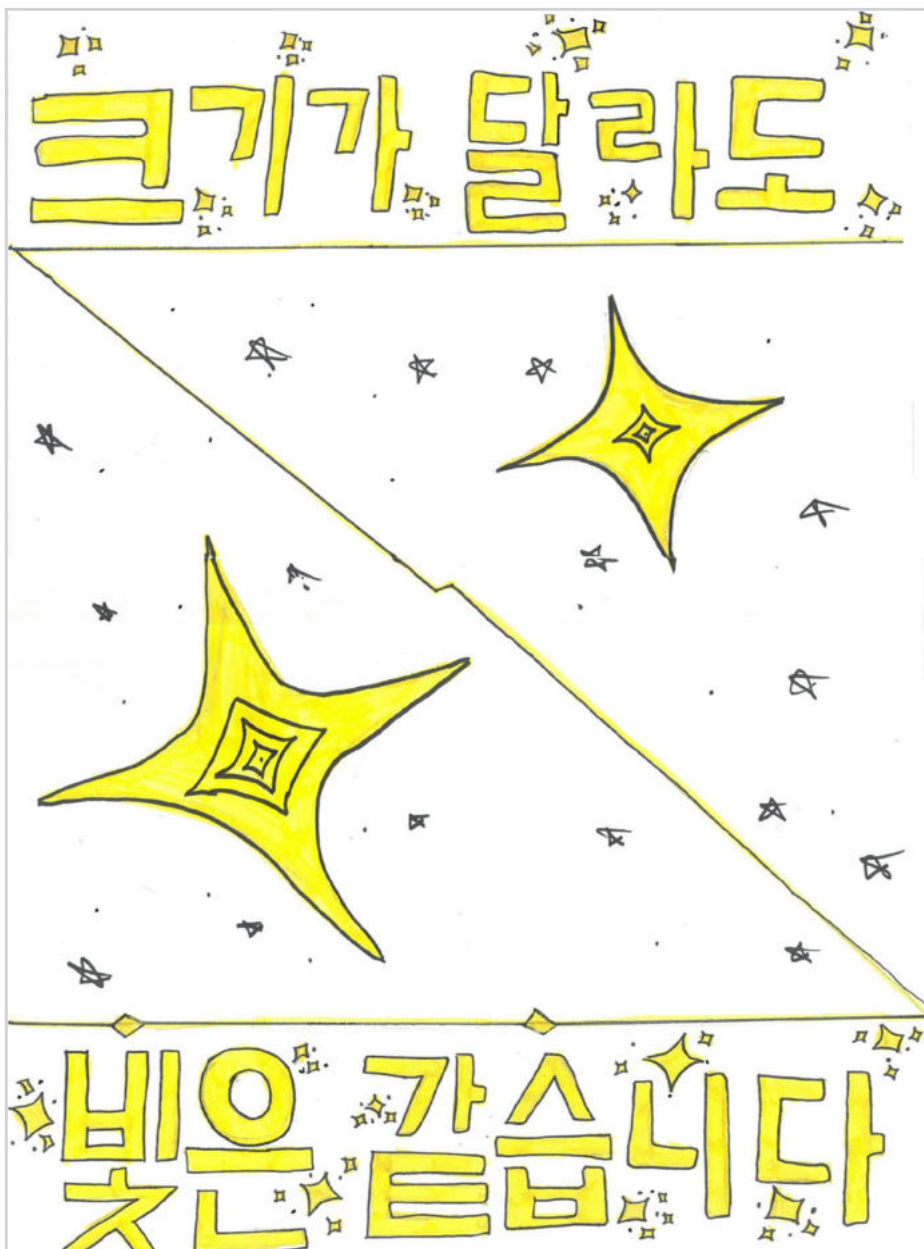


크기는 달라도 빛은 같습니다.

크기가 다른 별은 다양한 국적, 생김새,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낸다.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빛을 내고 있음은 '똑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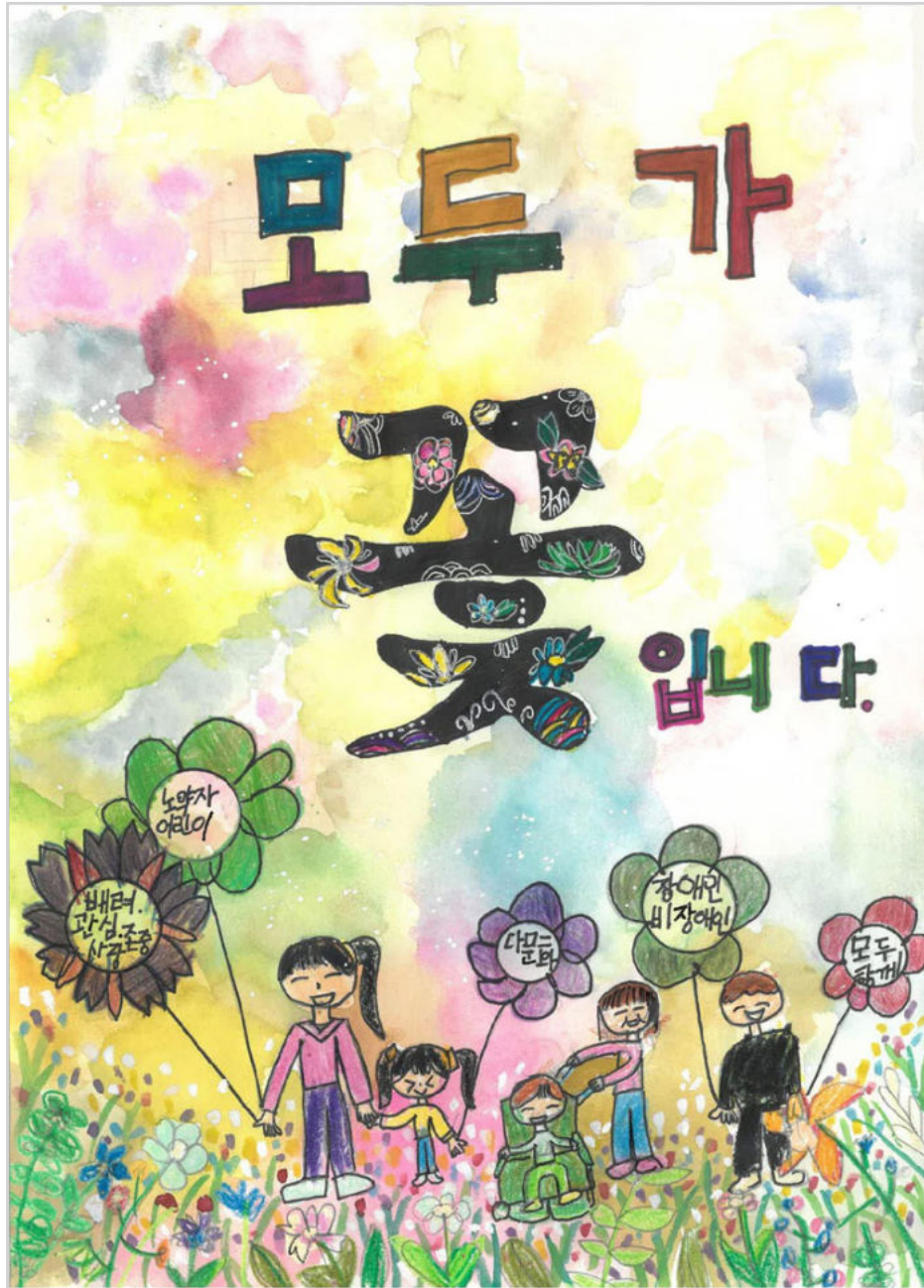
안양원곡초등학교
6학년 2반
김빅토르

모두가 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꽃을 닮은 것처럼 골고루 모두모두 아름답습니다.



인천부평북초등학교
2학년 3반
장윤지



다양한 피부색 같은 마음

피부색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종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한 예쁜 마음으로 살아요.



입선



인천연화초등학교
6학년 1반
주혜리

● — [그리고] 일러스트 부문 수상작

종이비행기

친구들과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생각에 잠기다.



김포구래초등학교
4학년 2반
김우리



모양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하기도 하잖아요. 지문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 라는 내용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인천연성초등학교
5학년6반
김주완

퍼즐 속 우리들

피부색만 다를 뿐, 지구에 사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세 인종 모두 기쁘게 웃는 날이 많길 바라며
deilght(기쁨)의 'd'를 퍼즐로 표현해 넣었습니다.



경남창원동중학교
2학년 3반
김경령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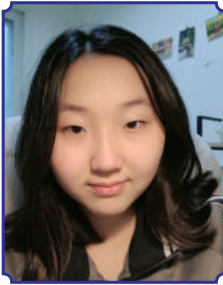
세상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했고,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두 여자가 서로의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두 여자의 머리에는 약자배려, 조금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모습, 인종 차별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별, 국적, 나이는 상관없어 우리는 다르지 않아 모두 한 마음 한뜻'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입선

용인상현중학교
1학년 3반
곽연우



● — [만들고] 웹툰 부문 수상작



배려가 만들어 낸 화음

서울대 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정현하



①



②



입선

차별 없는 교실



대구성동초등학교
6학년 3반
이봄

● — [만들고] 표어 부문 수상작



과거엔 도와주는 나
미래엔 도움 받는 나



과거엔 도와주는 나
미래엔 도움 받는 나

경남대병초등학교
6학년 1반
권도원

미워하지 않는 마음,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소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도 건강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단체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이 2008년 11월 연대하여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선진화된 시민문화 육성을 위해 건강한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건강사회운동본부**로 발족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위해 전문가 집단인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전문가 조직으로 국민에게 친숙하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비롯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통일된 주제 구현을 실천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건강이라는 부분은 보건의료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캠페인 진행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유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 세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는 몸·마음·가정·세계의 건강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공모전·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제 10회 건강한 사회 질서 지키기 공모전

발행일 | 2022년 11월

발행인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구

발행처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후 원 | 법무부, 행정안전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501(무교동, 원창빌딩)

전 화 | 02) 3789-0041, 2286

팩 스 | 02) 3789-0042

홈페이지 | <http://www.healthcampaign.or.kr>

디자인·인쇄 | Design H 02-2264-7999



건강한 사회속, 건강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

건강사회운동본부가 함께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사)건강사회운동본부
www.healthcampaign.or.kr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501(무교동, 원창빌딩)
T. 02-3789-0041, 2286 F. 02-3789-0042

